

■ 괴운(槐雲) 칼럼



한비자의 팔간(八姦)과 오두(五蠹)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중국의 역사를 보면 춘추전국시대는 전쟁과 잔탈의 시대였지만 사상과 학문의 황금기였다. 그래서 이 때를 백가쟁명시대(百家爭鳴時代)라고도 한다. 당시 대표적인 학파로는 유가(儒家), 도가(道家), 묵가(墨家), 법가(法家) 음양가(陰陽家), 명변가(名辯家)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정치 사상적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대립한 것은 유가와 법가이다. 유가는 공자, 증자, 자사, 맹자에게로 전해오는 인의(仁義)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이고, 법가는 상양(商鞅), 관중(管仲), 신불害(申不害)를 거쳐 한비(韓非)에게 계승된 법을 유일한 방법으로 하는 정치사상이다.

한비의 정치사상은 한마디로 법(法)과 술(術)로 요약된다. 법이란 법령을 말하고, 술이란 사람을 조종하는 솔책이다. 한비는 정치의 유일한 방법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보고, 기준의 범치사상과 술을 통합하여 하나님의 법술이론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법과 술을 아울러 사용하면 군주의 지배는 더욱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엄격한 신상필벌을 강조하고 있다.

고전 한비자를 보면, 난언편(難言篇)부터, 설립편(說林篇)까지 총 21개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가운데 팔간편(八姦篇)과 오두편(五蠹篇)이 있다. 팔간편에는 군주의 허점을 노리는 8가지 간계(姦計)와, 오두편에는 나라를 좀먹는 다섯 가지의 벌레들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팔간편에 기술된 간신들이 노리는 여덟 가지 방법과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팔간이란 나쁜 신하가 군주에게 저지르는 '여덟 가지 간사한 행동(姦計)'으로 동상(同床), 재방(在旁), 부형(父兄), 양양(養殃), 민맹(民萌), 유행(流行), 위강(威強), 사방(四方) 등이다.

<동상>이란 정실부인과 후궁들이 군주를 현혹시키고 군주가 편히 쉬려고 할 때나 만취상태일 때 원하고자 하는 일을 얻어내는 것이다. <재방>은 군주의 측근들인 심부름꾼(內侍)을 통해서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부형>이란 군주의 친인척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어내고, <양양>이란 군주의 기호(嗜好)를 이용해서 일을 꾸며 조래되는 군주의 재앙이다. <민맹>이란 신하가 공적인 재물로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유행>이란 교묘한

말로써 군주의 마음을 허물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위강>은 협객이나 무사들의 위세를 빌려 군주를 위협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며, <사방>은 주변 국의 위세를 이용하여 군주가 큰 나라를 섬기도록 하면서 군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주는 여색을 즐길지도로 청알(請謁)을 허락하지 않고, 사사로운 청을 하지 말 것이며, 측근들에게는 그 말에 책임을 지게하고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즐거운 것을 구경할 때도 반드시 어디서 온 것인지 알리게 하고, 백성들에 은데도 임금이 직접 배풀고 신하에게 못하게 한다. 제후의 구색(求索)은 불법이며 거부하고, 외세의 힘도 듣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임금이 관직과 작록(爵祿)을 마련하는 것은 어진 인재를 등용하며 그 공로를 권장하기 위함이다. 현자(賢者)와 불肖(不肖)를 구분 않고 등용하면 사당(私黨)으로 부식한다. 관리들은 자기 직무를 팽개치고 외부와 교제만 힘쓰면 나를 멸망하게 하는 풍조이다.

다음은 오두편이다. 오두는 나라를 좀먹는 다섯 가지 해충(害蟲)이다. 어떤 재목이나 좋은 책도 좀이 먹으면 무용지물이다. 한비는 나라를 갑아먹어 황폐를 만드는 다섯 부류의 사람으로 인의도덕의 정치를 주장하는 유가(儒家), 세객(說客), 종횡가(從橫家), 사사로운 무력으로 나라 질서를 해치는 유협(游俠), 공권력에 의지해 병역이나 조세를 면제하려는 권문귀족(權門貴族), 농민들의 이익을 뺏는 상공인(商工人)을 들었다. 요즘 시대로는 학자(學者), 논객(論客), 협사(俠士), 측근(側近), 악덕상공인(商人)이다. 학자와 논객은 변설(辯說)을 교묘하게 하여 법을 의혹하게 만들고 임금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협사는 협사(挾訴)로 운임으로 금령(禁令)을 범하고, 근신들은 뇌물로 사재를 축적한다. 상공인은 농민의 이익을 가로챈다. 그리고 한비는 이러한 다섯 종 별례를 법의 힘으로 없애야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비는 성인 공자의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임에도 70여 명의 제자밖에 안 되었지만 어리석은 노나라 군주 애공(哀公)에게는 백성들이 몰려드는 명분으로 유가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한비의 팔간과 오두는 2,2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국가 위정자나 어떤 조직의 최고경영자들에게 큰 경종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팔간편에 기술된 간신들이 노리는 여덟 가지 방법과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팔간이란 나쁜 신하가 군주에게 저지르는 '여덟 가지 간사한 행동(姦計)'으로 동상(同床), 재방(在旁), 부형(父兄), 양양(養殃), 민맹(民萌), 유행(流行), 위강(威強), 사방(四方) 등이다.

<동상>이란 정실부인과 후궁들이 군주를 현혹시키고 군주가 편히 쉬려고 할 때나 만취상태일 때 원하고자 하는 일을 얻어내는 것이다. <재방>은 군주의 측근들인 심부름꾼(內侍)을 통해서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부형>이란 군주의 친인척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어내고, <양양>이란 군주의 기호(嗜好)를 이용해서 일을 꾸며 조래되는 군주의 재앙이다. <민맹>이란 신하가 공적인 재물로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유행>이란 교묘한



를 중보하고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사회인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현익 교수는 베트남전쟁과 6·25전쟁, 아시아의 냉전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자로 명성이 높다. 베트남 전 당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종교인류학적으로 접근해 유족들의 문화를 연구한 '학살, 그 이후'로 '인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미국인류학회 기어츠상을 수상했다. 2009년에는 동남아시아 연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조지카힌상을, 2019년에는 저명한 프랑스 구조주의 인류학자의 이름을 딴 클로드레비스트로스상도 수상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세계적 인류학자인 권현익(시진) 영국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 그동안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올해 영국학술원(British Academy) 회원(Fellow)으로 선발됐다. 120년 역사의 영국 인문·사회·과학 국립 학술원에 한국인 학자가 처음으로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1902년 설립된 영국학술원은 국내외 총 회원 약 1400명이며 영국에서는 매년 최대 52명을 신규 회원으로 선발한다. 권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 이달의 인물

권현익 교수, '120년 역사'

영학술원 회원에 한국인 최초 선정

세계적 인류학자인 권현익(시진) 영국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가 그동안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올해 영국학술원(British Academy) 회원(Fellow)으로 선발됐다. 120년 역사의 영국 인문·사회·과학 국립 학술원에 한국인 학자가 처음으로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1902년 설립된 영국학술원은 국내외 총 회원 약 1400명이며 영국에서는 매년 최대 52명을 신규 회원으로 선발한다. 권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2022年 10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09. 29. ~ 10. 26.
총 납부자 83명, 지사 1곳

(이름순)

단위: 원

권간식(서울금천)	권병환(삼척)	권영암(군위)	권일홍(보령)	권필원(서울금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구민(대구)	권봉현(포항)	권영일(단양)	권재청(산청)	권혁광(경주)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구석(서울송파)	권석근(합천)	권영준(상주)	권정곤(서울중랑)	권혁문(대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구훈(경주)	권성옥(광주)	권영징(의성)	권정수(창원)	권혁일(원주)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국근(산청)	권성택(청주)	권오부(부산)	권종모(영주)	권혁준(대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상(대전)	권세동(대구)	권오선(경산)	권종훈(서울은평)	권혁천(양주)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윤(안동)	권수덕(고성)	권오수(대구)	권준화(대구)	권혁현(평창)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정(안동 수상동)	권수영(청주)	권오식(대구)	권진기(정읍)	권현(대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주(안동)	권수웅(진주)	권오안(창녕)	권진택(청주)	권현우(봉화)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준(서울강서)	권순창(안동 송현동)	권오영(강릉)	권창봉(서울구로)	권효택(전주)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하(안동)	권순호(대구)	권오천(김포)	권창순(양평)	권희송(서울성동)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현(대구 구암동)	권승주(홍천)	권오필(경주)	권창우(대전)	지사지국 납부지역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훈(이천)	권시현(광주)	권오혁(김포)	권천수(안동)	추밀공파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0
권대석(서울서초)	권양호(봉화)	권용운(제천)	권태상(서울중랑)	남부자 정정 명단
30,000	30,000	30,000	30,000	
권돈호(옥천)	권영각(경주)	권용조(김해)	권태혁(안동)	권정호(남원)
30,000	30,000	30,000	30,000	50,000
권두섭(충주)	권영대(고양)	권우상(청원)	권태환(영덕)	
30,000	30,000	30,000	30,000	
권득호(경기용인)	권영록(합천)	권원일(안동)	권태희(상주)	
30,000	30,000	30,000	30,000	
권병체(영천)	권영식(대구 화랑로)	권위달(영덕)	권택훈(경주)	총 2,790,000원

생활속의 한방건강



환경사랑은 정신건강 스스로증명서

권희원(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공기를 제공해 주며,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빛과 열기를 통과시켜 주는 중요한 통로이다. 이렇게 중요한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은 이산화탄소(CO2)의 과다배출이다.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하여 과다한 이산화탄소(CO2)가 대기로 배출됨에 따라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太陽能)를 흡수하여 지구의 대기가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을 낳아,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으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고,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고, 이는 자연재해로 이어진다.

우리 삶의 바탕이 되고, 식량의 근원이 되는 토지는 생활과 산업 쓰레기 및 과다한 농약살포 등으로 오염된다. 또한 이산화황(SO2), 질산(NO2) 등이 포함된 산성비는 삼림과 농경지를 황폐화시키고, 건축물 등을 부식시키며, 식물의 잎 조직에 손상을 주어 광합성을 방해한다.

수질오염이란 인간의 활동 결과 발생한 폐수 가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에 유입되어 수질이 저하되어 간다. 수질저하는 생물체를 해롭게 하는 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공장, 발전소, 하수처리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정적 수질오염원이다. 또한 비고정적 수질오염은 경작지, 삼림, 도로, 주차장, 세차장 등에서 나오는 먼지, 침전물, 살충제, 비료, 중금속, 염분, 기름, 쓰레기 등에서 배출된 다양한 오염 물질이다. 그 중 경작지는 최근에 더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에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이 심각하다.

4.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

환경보호는 개인, 단체, 정부 등에 의해 자연환경을 유지, 보전하는 것은 물론 피해부분을 복구하는 것이다. 이 실천방법으로 기존의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오염원의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규제 및 종례와 다른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오염원의 배출은 개별적 규제와 더불어 전체적인 배출총량도 규제를 해야 하며,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아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 가스는 흡수(산림 등)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들자는 개념이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의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므로, 이의 실행을 위한 준비 또는 실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한걸음을 내딛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의 소비는 사용 효익에 상관없이 환경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환경오염은 생활과 산업 활동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배출된 쓰레기, 노폐물 등의 오염물질은 생태계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식품오염 등으로 표출되고,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오염도 더불어졌다.

3. 보다 심각하게 덤벼드는 환경오염들

대기(大氣)는 우리의 호흡에 필요한 신선한

한국 부상 253
→권영복